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닝샤후이족자치구 대표단, 경북도 방문... 협력방안 논의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경북도청 찾아 대표단 5월 15주년 주요 외교 행사 초청... 전방위 경제, 사회, 문화교류 확대 기대	국제통상과	 사진별첨
② 도로관리에 첨단기술 도입한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업무협약 도로시스템 구축·관리 위탁 협약식... 지방도 첨단기법 관리 올해 지방도 6개 노선 480km 사범 운영.. 운영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지방도로 확대	도로철도 공항공과	 사진별첨
③ 모두가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한다 포항 포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상북도대회 개최	사회복지과	 사진별첨
④ 걷기 좋은 계절... 문경 찻사발축제에서 쉬고 담고 거닐어요~ 선비들의 꿈을 담은 옛길... 문경새재에서 27일 찻사발 축제 개막 ‘쉬고, 담고, 거닐다’ 라는 주제로 내달 6일까지 10일간 열려 형식적인 개막식 폐지, 도예작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기장의 하루’ 첫선	관광마케팅과	
⑤ 2018 제안제도운영 평가에서 상주시의성군 최우수상 수상 우수상에는 경산시·예천군, 장려상은 구미시·영천시, 청도군·봉화군	자치행정과	사진별첨
⑥ 어서오이소~ 경북으로... 여성단체 경북관광 불-업(Boom-up) 경북여성단체협의회, 미소찬절 캠페인으로 지역 축제 및 관광지 홍보에 앞장	여성가족 정책관	사진별첨
⑦ 불굴의 해병대 문화 체험... 2019 해병대 문화축제 열린다 27~28일까지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 상륙작전 등 불거리 풍성	관광마케팅과	
⑧ 김곡지나방 월동유충 예년 보다 섭식활동 빨라.. 피해 확산 우려 평년 보다 평균기온 2.1℃ 상승, 월동유충 활동 10일 빨라져.. 조기방제 시급	농업기술원	사진별첨
⑨ 개화가 시작된 사과원, 저온 및 서리피해 주의 최근 이상기상 대비, 인공수분 등 사전에 과원 관리 철저히 해야	농업기술원	
⑩ 경북 소방본부,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차량정보검색 시스템 및 고전압배터리 화재대응 전술 제언’ 주제로 연구발표	소방본부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성자	과장	박노선		
			팀장	권기일	주무관	심재훈
		연락처	054-880-2724			

닝샤후이족자치구 대표단, 경북도 방문... 협력방안 논의

-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경북도청 찾아 -
- 대표단 5월 15주년 주요 외교 행사 초청.. 전방위 경제, 사회, 문화교류 확대 기대 -

경북도-닝샤후이족자치구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닝샤후이족자치구 정치협상회의(의회 격) 마시우전(馬秀珍)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 12명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경북도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오는 5월 닝샤에서 개최되는 우호결연 15주년 기념행사 협의와 전통적인 우호교류 관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16년 신도청 개청식에 참석한 리수편 정협 부주석 방문 이후 3년 만이다.

26일(금) 경북도청을 방문한 마시우전(馬秀珍) 부주석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내달 5월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열리는 우호결연 15주년 기념행사에 경북도 대표단 및 공연단, 무역사절단 등을 초청하고 경제, 문화, 관광을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북도는 5월 닝샤 기념행사에 공연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경북 전통의 멋을 알리고, 경북 화장품 대표 브랜드인 클루앤코 닝샤 전시관 개소식과 수출상담회를 열어 경북도 상품의 수출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와 닝샤후이족자치구는 2004년 우호관계를 맺은 이래 해외공무원 한국어연수,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편 념샤 대표단 일행은 이번 일정 중 경산시 소재 경북도립 노인병원과 안동병원을 찾아 경북의 선진 보건, 의료, 노인복지 분야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

그동안 사드 여파로 한중 관계가 다소 주춤했지만 점차 발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념샤 대표단을 맞이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와 념샤후이족 자치구 우호관계가 벌써 올해로 15년을 맞았다”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양 지역의 인적·문화 교류를 한층 더 발전시켜 관광·경제 분야로까지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중국 자매우호지역

중국 닝샤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道 방문 계획

■ 개 요

- 방문일자 : 2019. 4. 25(목) ~ 4. 27(토)
- 방 문 자 : 마 시우전(馬秀珍) 닝샤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 12명
- 방문목적
 - 우호지역 교류협력 강화 논의, 15주년 기념행사 초청
 - 보건,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 시찰 및 협력 강화

■ 주요일정

일 자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4.25 (목)	16:30~18:12	- 서울→대구 - 만찬	KTX(숙소: 대구 그랜드호텔) 인근 식당
4.26 (금)	09:30~10:30 11:00~11:40 12:00~14:00 14:00~16:00 16:00~16:30 16:30~17:00 17:00~18:00 18:30~20:00	- 노인요양병원 시설 시찰 - 경산시청 방문 - 오 찬 - 경산→안동 - 도청투어 - <u>경북도청 방문</u> - 이동 및 체크인 - 환영만찬	경산시 <u>지사님 예방</u> 안동 그랜드호텔 경제부지사
4.27 (토)	09:30~11:30 12:00~13:30 13:30~	- 안동병원 방문 - 오 찬 - 안동→부산	MOU체결 MU9830(17:50~)

■ 방문자 명단

성명	한자명	직위 및 직책	비고
마 시우전	馬秀珍	닝샤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여
천 리핑	陳莉平	닝샤 정치협상회의 부비서장	여
튀 용창	妥永蒼	닝샤 민정청 청장	남
왕 징	汪 敬	닝샤 정치협상회의 사회법치위원회 주임	남
바이 위전	白玉珍	닝샤 외사판공실 부주임	여
정 밍밍	曾明明	닝샤 외사판공실 간부	여
리 줌중	李作忠	닝샤 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남
리우 시우리	劉秀麗	닝샤 의료보장국 국장	여
천 용	陳 勇	닝샤 위생건강위원회 노령건강처 처장	남
장 엔중	張延忠	닝샤 노령판공실 부주임	남
마 샤오페이	馬曉飛	닝샤 인촨시 위생건강위원회 주임	남
장 닝성	姜寧生	닝샤 식취산시 위생건강위원회 주임	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공항공과			
		작성 자	과 장	배 용 수		
			팀 장	손병순	주무관	박상영
		연 락 처	054-880-3985			

도로관리에 첨단기술 도입한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업무협약

- 도로시스템 구축·관리 위탁 협약식... 지방도 첨단기법 관리 -
- 올해 지방도 6개 노선 480km 시범 운영... 운영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지방도로 확대 -

경상북도는 26일(금) 지방도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시범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포장도로, 교량, 도로 비탈면, 위험도로 등을 첨단 도로관리 기법을 활용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정량화된 데이터 자료를 구축·관리하는 지방도 도로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북도내 경과 년수 30년 이상인 도로시설물은 지방도 전체 2,530km중 45%, 교량은 15% 정도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그동안 도로 유지보수는 대부분 육안조사로 사전예방 보다는 사후조치 위주로 관리했다.

특히, 도로변 비탈면은 2,500여 개소로 공무원의 점검으로 관리되고 있고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풍수해 등이 도로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도로안전을 위하여 도로비탈면 관리도 이번 시스템 구축에 포함했다.

지방도 도로관리시스템은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교량관리시스템(BMS), 비탈면관리시스템(CMS)으로 구성된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도로 포장상태 및 포장도로 정보를 구축하고, 교량관리시스템은 교량현황, 교량 정기 및 정밀점검 결과와 보강방안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며, 비탈면관리시스템은 비탈면 상태와 위험도 평가자료 등을 구축하게 된다.

앞으로 도로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는 경북도의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유지보수 우선순위 산출 및 유지보수 방법 결정 등을 위한 합리적 근거 자료로 활용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안전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올해 우선 지방도 6개 노선 480km의 도로 및 교량, 비탈면에 대한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내년 부터는 전체 지방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터널, 굴착·보수, 도로표지, 도로제설 시스템 등도 구축·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는 장기적·체계적인 도로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며 “앞으로 과학적 분석자료를 근거한 예방적 도로관리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도로 시스템구축 및 관리위탁 협약

-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도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도로관리체계 도입
- 전문기관에 의한 예방적 도로관리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 협약개요

- 협약일시 : 2019. 4. 26일 16:00~16:30
- 장 소 : 도청 (309호 사립실)
- 주요내용 : 지방도 도로관리 시스템구축 및 관리위탁
- 주요참석
 - 도지사, 건설도시국장, 도로철도공항과장, 북부사업소장
 -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토목본부장, 기술연구소장, 연구개발팀장
 - 도로시스템구축 및 수탁자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등

2 시간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6:00~16:10	10'	• 인사말씀 - 도지사 - 한국건설관리공사장	
16:10~16:20	10'	• 업무협약 내용설명(도로철도공항과장) (동영상7분)	
16:20~16:25	5'	• 업무협약 서명 및 교환	
16:25~16:30	5'	• 기념촬영	

※ 지사님 하실일 :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지방도 도로관리 전문기관 위탁

【시범위탁 : 포장·교량·비탈면·위험도로】

<시스템구축·조사분석·위탁관리>

- 도로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자동화 장비에 의한 도로조사
- 기하구조 등 전문기관 조사 및 자료분석으로 최적화된 도로관리
- 관리평가를 통한 중장기 합리적인 보수계획 및 효율적 예산투자

사업개요

- 시스템 구축(4종) 및 도로 조사 분석 ~ 33억원
(포장·교량·비탈면관리, 지방도 2,530km 조사·분석 등)
 - 2019년 시스템(4종)구축 및 조사 분석 ~ 9억원
(포장·교량·비탈면관리, 지방도 6노선 481km 조사·분석 등)
- ※ 운영관리비(위탁) 연간 6.5억원 정도

추진일정

- ‘17. 10월 도로관리 시스템구축 검토 / 예산 미확보
- ‘18. 9월 『도로관리시스템 시범구축계획』 수립
- ‘19. 2월 전문기관 도로관리 위탁사항 협의(도↔공사)
- ‘19. 4월 도로관리 협약 및 위탁기관 지정·위탁

위탁추진

-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로관리 시범위탁으로 도로·교량 등 노후 도로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한국건설관리공사 도로관리 위탁 협약

지방도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도입 효과

-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도로시설물, 유지보수현황 등)
-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해 소요비용 절감 및 시설물 공용기간 연장
- 제한된 유지보수 예산으로 최적의 유지보수 정책 수립
- 유지보수예산의 합리적 근거 및 효율적인 예산 분배

육안조사 · 문제 발생후 사후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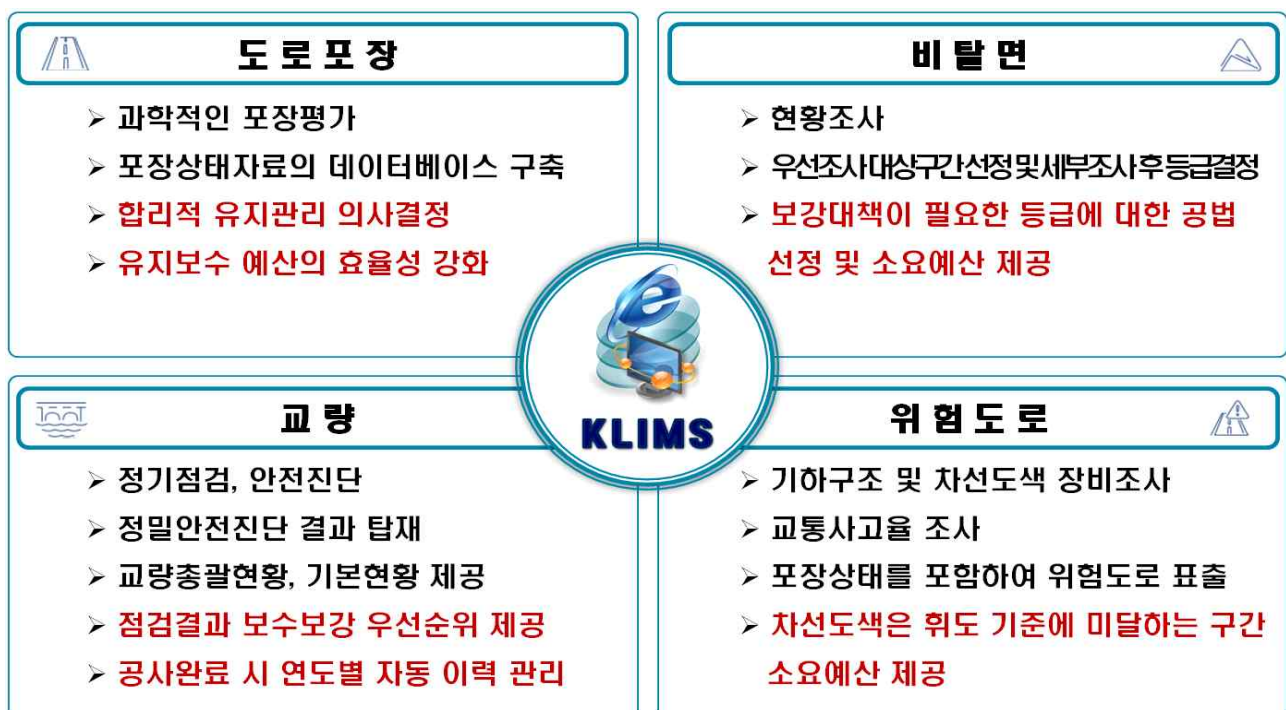
[기존 관리]

과학적·예방적 시스템 및 효율적 투자

[안전과 경제성을 시스템적 도로관리]

시스템 구성

- 도로포장(PMS), 교량(BMS), 비탈면(CSMS), 위험도로를 통합하는 ICT기반의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작성자	과장	김 상 우		
			팀장	정상원	주무관	백인식
		연락처	054-880-3713			

모두가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한다

- 포항 포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상북도대회 개최 -

경상북도는 26일(금) 포항 포스코 국제회의장에서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상북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기관, 법인, 시설, 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과 읍면동에 두고 있는 민관협력 기구다.

시장·군수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시군의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등 부서 담당공무원, 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의료·정신보건·경찰·소방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 대학교수, 종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민관협의체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자원을 조사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 사회보장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치,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적 안전망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등 최 일선에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포항시,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북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모두가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라는 주제로 성황리 열렸다.

특히 민선7기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경북’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포항시청 윤동우 (복지6급),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부위원장 최영건 등 15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와 보건복지부 박문수 팀장이 ‘커뮤니티 케어와 이웃사촌 공동체 점점 찾기’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홍재봉 동의대학교 교수가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만피골 놀이마당-한터울’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단절된 이웃을 연결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상북도대회 개최

□ 개 요

- 일 시: 2019. 4. 26.(금) 10:00 ~ 16:30
- 장 소: 포스코 국제회의장(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 참석인원: 300명(23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 주 관: 포항시,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북사무국연합회
- 사업금액: 24백만원(국비 14 도비 10)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근거

- 2005. 12월 추진 / 23개 시·군에 구성
-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기관·단체들의 협의체
- 시장·군수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 시·군 국(과)장, 보건소장, 복지관장, 자원봉사센터장, 지역자활센터장, 의료·정신보건·경찰·소방 분야 부서장, 대학, 종교단체 등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협의회 구성('19. 4. 18. 강석암(포항) 회장 선출)

□ 세부계획

시 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9:30~10:00	30'	■ 사전등록	
10:00~10:30	30'	■ 개회선언	포항시협의체위원장
		■ 내빈소개	
		■ 국민의례	
		■ 환영사	포항시장
		■ 유공자 표창	15명
		■ 대회사	도지사
		■ 축 사	시의장
		■ 사진촬영	

참고 : 전체일정

시 간		소요 (분)	프로그램	내 용
부터	까지			
09:30	10:00	30분	식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10:00	10:30	30분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자 표창(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촬영(전체)
10:30	10:40	10분	휴 식	
10:40	12:40	120분	기조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케어와 이웃사촌 공동체 점점 찾기 「박문수」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사무관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12:40	13:40	60분	오 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 내 식당
13:40	14:00	20분	공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뚝골 놀이마당-한터울」 공연
14:00	16:00	120분	초청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홍재봉」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0	16:30	30분	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평가 및 폐막식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성자	과장	김 병 곤		
			팀장	황의철	담당자	장수희
		연락처	054-880-3212			

건기 좋은 계절.. 문경 찻사발축제에서 쉬고, 담고, 거닐어요~

- 선비들의 꿈을 담은 옛길... 문경새재에서 27일 찻사발 축제 개막 -
- ‘쉬고, 담고, 거닐다’ 라는 주제로 내달 6일까지 10일간 열려 -
- 형식적인 개막식 폐지, 도예작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기장의 하루’ 첫선 -

건기 좋은 계절 봄을 맞아 ‘2019 문경 찻사발축제’가 전국 곳곳의 봄맛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쉬고, 담고, 거닐다’라는 주제로 27일(토) 개막해 내달 6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문경 찻사발축제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우리나라 전통 차(茶) 문화와 도자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개막행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기존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관람객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 첫 선을 보이는 ‘사기장의 하루’ 행사는 하루 두 번 축제에 참여한 도예가들이 직접 도자기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까지 곁들인다.

또한 특별행사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명장전’에는 국내 전통 도예계의 대부인 중요무형문화재 김정옥 선생, 경북무형문화재 천한봉 선생, 이학천 선생 등 ‘빅3 도예인’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는 도자기 제작과 다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아울러 일반관람객이 조선시대 왕가(王家)의 옷을 입고 축제장을 거닐며 용상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왕의 찻자리’는 축제장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운다.

이 밖에도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전통방식의 도자기를 직접 제작해보는 ‘나의 수제자가 되어주겠나’와 ‘찻사발 그림 그기리’ 등 체험거리도 풍성하다.

문경지방은 예로부터 도자기를 많이 생산하던 고장으로 문경도자기는 오랜 세월 조상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망대이가마를 사용해 1,250℃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내는 전통방식으로 제작해 역사와 정통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경찻사발축제는 지난 1999년부터 문경도예가들의 전통방식 찻사발 제작 시연을 시작으로 올해 21회째를 맞아 이제 경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축제는 어려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이벤트로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간 500만 명이 다녀가는 이번 축제가 경북의 뛰어난 도자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종진 부지사는 첫날인 27일(토) 축제장을 찾아 ‘사기장의 하루’와 ‘대한민국 명장전’ 등 각종 행사에 일반 관람객과 함께 참여한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성 자	과 장	정진환		
			팀 장	송홍식	주무관	김선환
		연 락 처	054-880-2838			

2018 제안제도운영 평가에서 상주시의성군 최우수상 수상

- 우수상에는 경산시·예천군, 장려상은 구미시·영천시, 청도군·봉화군 -

경상북도는 26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안제도운영 평가 우수시군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제안을 통한 도민 소통과 정책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제안제도 운영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자체제안 공모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평가항목에 대한 서면 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상주시와 의성군, 우수상에는 경산시와 예천군, 장려상은 구미시, 영천시, 청도군과 봉화군이 수상했으며, 각 시군별 제안업무 유공 공무원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주시는 지난해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8건의 제안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우수제안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전 제안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생 인구정책 포럼, 육아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를 통한 현장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안 분야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제안 내용을 분야별, 시기별 다양한 항목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제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제안내용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정발전연구단을 구성하여 부서 구분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했다.

또한 공무원 창의경연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해 주민들의 정책참여 욕구를 해소하는데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한 점이 인정을 받아 군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산시는 청풍당당 포럼 운영, 전문가를 활용한 시정 주요시책 공모, 새로운 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예천군은 상상디자인단 운영, 혁신아이디어 해커톤 개최, 제안 재심사를 활성화 한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영천시는 자체공모전(4회)을 개최하고 아이디어특공대 구성·운영했으며 구미시는 구미미래디자인팀 운영, 제안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청도군은 군정발전기획단 운영, 정책과제개발 교육을 실시했으며 봉화군은 민관협력 스터디그룹 운영, 제안 채택 현실화 방안 발표회 등을 실시해 도민행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도민을 정책수요자가 아닌 협업 파트너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 도입이 필요한 때” 라며

“도민의 제안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도민행복과 도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 가동을 통해 우수 제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2018년 제안제도 운영 우수 시군 시상 계획

❖ 도정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우수 시·군 시상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 도모

시상개요

- 일 시 : 2019. 4. 26(금) 11:00
- 장 소 : 도청 화랑실(본관 2층)
- 대 상 : 8개 시군(기관표창 8, 유공공무원 8)
 - 최우수(2) : 상주시, 의성군
 - 우 수(2) : 경산시, 예천군
 - 장 려(4) : 구미·영천시, 청도·봉화군
- 주요내용 : 우수시군 기관표창 및 유공공무원 시상

시간계획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 '	우수 시·군 시상(8개 시군)	
11:10 ~ 11:20	10 '	유공 공무원 표창(8명)	
11:20 ~ 11:25	5 '	인사말씀	
11:25 ~ 11:30	5 '	단체 기념촬영 후 해산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조 광 래		
			팀 장	곽은희	주무관	김은주
		연 락 처	054-880-4536			

어서오이소~ 경북으로... 여성단체 경북관광 붐업(Boom-up)

- 경북여성단체협의회, 미소친절 캠페인으로 지역 축제 및 관광지 홍보에 앞장 -

경상북도는 26일(금)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경북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지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관광 붐업(Boom-up) ‘여성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여성단체협의회 경북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업(UP)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여성, 대가야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도정역점 시책인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서오이소~ 경북으로!’ 구호를 외치며 경북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 다함께 한마음으로 실천다짐 결의를 하고 동참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경북도정 홍보영상 시청을 통해 도정시책 추진방향을 홍보하고 소양업(up) 교육으로 ‘대가야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한 후, 대가야 박물관과 왕릉전시관을 관람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북여성단체협의회는 축제의 달 5월을 시작으로 경북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미소친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경북의 4대 정신인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을 중심으로 지역별 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별 축제에 적극 참여해 주요 관광지를 홍보한다.

또한, 5월부터 시작되는 경북 축제 품앗이 프로그램으로 4개 단체 200여명의 회원들이 지역 축제장을 찾아 경북관광 활성화 붐을 일으키는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경북여협과 대구여협의 우호교류

협력행사에서는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 시도 관광 교류활성화, 여성권익 신장과 지위향상, 양성평등 구현 등 우호 협력 확대, 지역 특산품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판매 적극협력,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성공추진에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은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축제 참가와 경북관광 홍보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여성지도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경북관광의 새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북여협 「경북여성 소양UP 프로젝트」 1기 경북관광 **붐업(Boom-up)**, 여성 한마음 다짐 대회

■ 추진개요

- 일 시 : 2019. 4. 26.(금) 13:30
- 장 소 :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
- 참석인원 : 300명 정도(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지역여성)
- 주최/주관 : 경상북도/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 주요내용
 - 경북관광활성화 지원 실천 다짐 퍼포먼스
 - '대가야' 역사·문화 전문가 특강, 현장탐방 등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13:5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13:50~ 14:0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공연 	도립교향악단
14:00~ 14:0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 내빈소개 	사회 김종혜 총무
14:05~ 14:2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축 사 • 환영사 	윤난숙 경북여협 회장 이달희 정무실장 곽용환 고령군수 김선옥 고령군의회의장
14:20~ 14:3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관광 「붐업(Boom-up)」 여성 한마음 다짐 대회 	모두다함께
14:30~ 14:4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영상 	경북도, 고령군
14:40~ 17:30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업 교육 : 경북여성 대가야를 만나다 (특 강) 대가야 이야기 (현장방문) 대가야 박물관, 왕릉 	정동락 학예사
17:30	• 폐회	

- ‘세계인이 찾는 경북관광 봄’ 조성을 위한 -

실 천 다 짐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세계인이 찾는 경북관광 봄”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 축제, 주요 관광지 홍보, 타·시도 관광교류 등 경북 관광 봄을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 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경북여성단체협의회는 ‘다시 경북으로’ 관광경북 실현을 위해 관광객 친화환경 조성과 미소친절 캠페인 전개에 노력한다.

하나, 경북여성단체협의회는 화랑정신,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을 중심으로 지역별 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별 축제, 주요 관광지 홍보 등 경상북도와 상생하여 관광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

하나, 경북여성단체협의회는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참여한다.

2019년 4월 26일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일동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성 자	과 장	김 병 곤		
			팀 장	황의철	주무관	한정혁
		연 락 처	054-880-3213			

불굴의 해병대 문화 체험... 2019 해병대 문화축제 열린다 - 27~28일까지 포항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 상륙작전 등 볼거리 풍성 -

해병대 문화를 체험하고 병영문화를 알리는 ‘해병대 문화축제’가 27일(토)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포항시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27일(토)에는 해병대 해변훈련장에서 상륙작전(해상돌격, 공중돌격)을 시연하고 도심 축하 카퍼레이드와 민·관·군이 함께하는 화합행진을 펼친다.

또한, ‘해병대는 살아있다’ 주제 공연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멋진 모습을 선보이고 관광객들과 장병들을 위해 트로트, 댄스, K-POP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화려한 무대를 꾸민다.

축제 둘째 날에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지며, 의장대와 군악대의 공연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군인들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전투식량 5종을 준비하여 군대 음식을 직접 맛 볼 수 있고 해병대 군복 셀카 촬영, 위장크림 페이스페인팅 등 많은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실제 해병대의 각종 특수 장비와 무기도 전시해 직접 보고 만져 보는 병영체험도 할 수 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해병대가 경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포항지진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있지만 시민들이 톨톨 뭉치면 어떠한 재난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며

“경북도는 각종 축제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 축 제 개 요 》

- 기 간 : 2019. 4. 27(토) ~ 4. 28(일) / 2일간
- 장 소 : 오천읍 냉천수변공원, 해병1사단, 도구해안
- 주최/주관 : 포항시/해병전우회 경북연합회
- 참관인원 : 약 10만명
- 주요내용 : 상륙작전 시연, 블랙이글스 에어쇼, 군장비 전시, 부대행사 등

□ 개 막 식

- 일 시 : 2019. 4. 27(토) 13:00 ~ 15:40
- 장 소 : 오천읍 냉천수변공원
- 참석인원 : 20,000명

□ 시간계획(안)

구분	시간계획		행 사 내 용	비고
식전 행사	13:00~13:30	30´	◦ 해병대 상륙작전 시연 (해상돌격, 공중돌격)	도구해안
	14:00~14:30	30´	◦ 도심 축하 카퍼레이드 (도구해안)	
	14:30~15:00	30´	◦ 민관군 화합행진 (내빈 및 전우회, 700m)	원용교
개막식	15:00~15:05	5´	◦ 개회선언 (해병1기 및 막내기수 참여)	수변공원
	15:05~15:15	10´	◦ 내빈소개 및 축사 (영상표출)	
	15:15~15:30	15´	◦ 주제공연 “해병대는 살아있다”	
	15:30~15:40	10´	◦ 축하퍼포먼스 ‘LED전광판 터치’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			
		작성자	소장	송인규		
			팀장	조지형	담당자	조신희
		연락처	054-531-0591			

감꼭지나방 월동유충, 예년 보다 섭식활동 빨라... 피해 확산 우려 - 평년 보다 평균기온 2.1℃ 상승, 월동유충 활동 10일 빨라져... 조기방제 시급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경북지역 감 주산지인(상주, 청도)에서 감나무의 주요 해충인 감꼭지나방 월동유충의 섭식활동이 평년 보다 빨라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감꼭지나방에 대한 조기방제를 실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감꼭지나방의 월동유충은 4월하순경 월동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섭식 활동을 시작하는데 올해 병해충 조사 결과 평년보다 약 10일정도 빠른 4월 20일경부터 감나무 신초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상주는 약 1.4℃, 청도는 약 2.8℃ 높아 감꼭지나방의 생장에 관여하는 유효적산 온도가 달성되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꼭지나방의 방제는 보통 5월 중순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올해는 4월 하순경으로 방제시기를 앞당겨 처리해야 한다.


상주감연구소는 현재 감 과원에서 신초부위에 나방유충의 배설물이나 잎말림증상이 발견 될 경우 유충에 의한 피해이므로 조속히 적용약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동에서 깨어난 1세대 유충은 신초만 피해를 입혀 비교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만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8월부터 깨어나는 2세대 유충의 밀도가 높아지고 2세대 유충은 열매 속으로 들어가 과육을 먹으며 성장해 피해를 받은 열매는 상품성이 떨어지고 조기낙과를 유발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송인규 상주감연구소장은 “온난한 겨울기온과 지속되는 높은 평균기온으로 인해 감꼭지나방 월동유충의 피해가 빨리 나타났다” 며

“현재 100개 신초 중 3~4개의 신초가 유충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재배시기가 되기 전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감꼭지나방의 초기밀도를 줄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작성 자	과 장	이 상 택		
			팀 장	남문식	담당자	김신동
		연 락 처	053-320-0458			

개화가 시작된 사과원, 저온 및 서리피해 주의

- 최근 이상기상 대비, 인공수분 등 사전에 과원 관리 철저히 해야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주말(4.27) 최저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개화가 시작된 사과 꽃의 저온 및 서리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기상지청은 26일(금)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이번 주말(4.27)에는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보다 5℃가량 낮아 늦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일반적으로 낮 기온이 낮고 오후 6시 기온이 10℃이하, 오후 9시 기온이 4℃ 이하이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으면 서리가 내릴 확률이 높다.

사과 꽃은 기온이 영하 1.7~영하 2.5℃ 이하로 떨어져 30분 이상 노출 되면 대부분 꽃이 얼어 조직이 파괴되면서 피해를 받는다.

서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풍법, 살수법, 연소법 등 서리 예방 대책을 활용해 사전 대비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송풍법은 기온이 내려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따뜻한 바람을 송풍시키는 방법으로 작동온도를 3℃ 정도로 설정하고 여러 대가 동시에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 효과적이다.

살수법은 스프링클러나 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하여 물이 얼 때 방출되는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온도가 1~2℃가 되면 살수장치를 가동하고 일출 이후에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

연소법은 톱밥, 왕겨 등을 태워서 과원 내 기온을 높여 주는 방법으로 기온이 -1℃ 정도가 될 때 10a당 점화통 20개 정도를 과원 주위에는 많이 배치하고 안쪽에는 드물게 배치하여 온도가 고루 올라가도록 한다.

연소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특히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최근 봄철 이상기상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농가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주시하면서 서리 방지대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며

“서리피해를 받은 농가는 인공수분을 꼼꼼히 하고 열매숙기를 늦추는 등 충분한 착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원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 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4. 26(금)】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과 장	김 진 욱		
	연 락 처	작 성 자	소방령	민병관	소방장 정원석
		054-880-6212			

경북 소방본부,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 ‘차량정보검색 시스템 및 고전압배터리 화재대응 전술 제안’ 주제로 연구발표 -**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25일(목) 대구 엑스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개최된 ‘전국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효과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과 특수화재에 대비한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연구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자료로 선정된 6개 시도 소방본부가 연구결과를 발표해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 소방본부는 임성호 소방경을 팀장으로 오상근 소방위, 김성룡 소방위, 이윤형 소방장으로 구성된 4명의 TF팀이 전기자동차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차량정보검색(CIS)* 시스템 및 고전압배터리 화재 대응(HFR)* 전술 제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해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 CIS(차량정보검색) 시스템 : 전기자동차 화재신고 접수 시 차량번호만으로도 차량의 특성 및 위험요인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 * HFR(고전압배터리 화재대응) : 전기자동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진압 전술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다양한 특수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만큼 미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기술 개발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